

조선시대 고농서에 나타나는 식물자원 고찰

A study of Plant Resources on ancient literatures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김미희* · 안옥선 · 강방훈 · 정명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Kim, Mi-Heui* · Ahn, Ok-Sun · Kang Bang-Hun · Jeong Myeong-Cheol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DA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후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가 간 논의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 위원회(WIPO/IGC)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2001~),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010)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의정서’ 채택으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규범을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전통지식 보호와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지식과 관련된 특허 분쟁, FTA 등에 대비하여 전통지식자원의 국내외적 권리확보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선시대 고농서에 나타나는 식물자원의 종류와 이용현황을 고찰하였다.

조선시대 고농서는 농촌진흥청 국역총서 17권 내 고농서 19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 초기 농서는 산가요록, 식료찬요이고, 중기 농서는 농가설, 농가집성, 색경 등 6종, 후기 농서는 증보 산림경제, 해동농서, 농정회요 등 11종이다.

위 농서에 나타나는 식물자원은 감나무와 같이 한글국명과 과명, 학명을 부여할 수 있는 297종류가 있고, 산나물과 같이 종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297종류에 대해서는 기록명, 북한명, 이명(지방명), 약재명, 용도 등을 조사하였다. 예를들면 감나무의 경우 농서에 감나무 · 감 · 시화 · 홍시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명은 돌감나무, 산감나무, 툇감나무이고, 약재명은 시엽(잎), 시자, 시병(꽃감), 시채(꽃받침), 노아시, 백시, 상시, 시, 시근, 시목피, 시상, 시약, 시엽, 시자과, 시전, 시정, 시칠, 시피, 시화, 오시, 홍시, 화시 등이다. 용도는 식용, 약용(감기 · 청열윤폐 · 야뇨 · 딸꾹질 · 토혈 · 지사 · 동상 · 중풍 · 주독), 관상용이다. 까마중의 경우는 천가 · 용규 · 산해 · 야해 · 도아리로 기록되어 있고, 이명은 가마중, 강태, 껌뚜라지, 떡딸, 까마종이, 떡때 팔이며, 약재명은 고규, 고채, 구아초, 산해초, 수가, 야해초, 오정초, 용규, 용규근, 용규자, 용안초, 지포자, 천가묘아, 천가자, 천천가, 천포과, 천포초, 흑가, 흑고냥, 흑성성, 흑천과, 흑천천이다. 용도는 식용(어린순-삶아서 나물로), 약용(청열해독 · 활혈소종 · 이뇨통림 · 학질 · 신경통 · 강장 · 이뇨 · 진통 · 중기 · 탈장 · 부종 · 대하증 · 좌골신경통)으로 쓰인다.

297종류를 식용, 약용, 유통용, 기호용, 섬유용, 염료용 등으로 구분하면 식용으로 쓰이는 식물은 172종류로 마, 갓, 측백나무, 유채, 은행나무 등이며, 약용은 252종류로 하수오, 홍초, 감나무, 쯤개리구밥, 느티나무 등이다. 유통용은 11종류로 박하, 들깨, 참깨, 검은깨, 동백나무, 목화, 산초나무, 잇꽃, 피마자, 유채, 곰솔이고, 기호용은 3종류로 담배, 결명자, 모시풀, 섬유용은 1종류 목화, 염색용은 9종류 봉선화, 밤나무, 해당화, 쪽, 잇꽃, 지치, 소귀나무, 치자나무, 맨드라미 등이다.